



‘2019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4일 태권도원 평원관에서 열린 가운데,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시범단이 시범공연을 펼치고 있다.

‘태권도의 날’ 기념행사 개최

문체부장관 표창 수여식
시범공연·영상 상영 등 진행

‘2019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4일 태권도원 평원관에서 개최되었다. 기념식에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이동섭 국회의원,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장, 홍일화 국

기원 이사장, 장용갑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 이대순 태권도진흥재단 명예이사장, 이상철 US태권도위원회위원장, 프라케시 솜서 라나 네팔태권도협회장, 황인홍 무주군수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시범단의 시범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기념사 낭독, 태권도에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은 태권도 세계화와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최영길 대한태권도협회 고문과 프라케시 솜서 라나 네팔태권도협회장 등 총 12명이 수상했다. 한편, ‘태권도의 날’은 지난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이 2006년 7월 25일 정기총회에서 9월 4일로 지정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KBO 출신’ 켈리
빅리그 첫해 10승 달성
MLB 샌디에이고전 선발 등판
70닝 3피안타 2볼넷 9탈삼진

‘KBO리그 출신’ 메릴 켈리(31·애리조나 다리아몬드백스)가 시즌 10승 고지를 밟았다. 켈리는 4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체이스 필드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 70닝 3피안타 2볼넷 9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애리조나가 샌디에이고를 2-1로 물리치면서 켈리는 시즌 10승(13패)째를 수확했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4.91에서 4.69로 끌어내렸다. 1회를 삼자범퇴로 끝낸 켈리는 2회부터 5회까지



매 이닝 주자를 출루시켰다. 그러나 한 번도 홈을 허용하지 않고 상대 타자들을 제압해나갔다. 2회 1사 후 런터 토프로를 볼넷으로 내보낸 켈리는 타이 프랑스를 삼진으로 처리했다. 그 사이 1루 주자가 2루로 도루하며 2사 2루가 이어졌지만, 매뉴얼 마크고를 3루수 땅볼로 돌려세웠다. 3회에는 2사 후 연속 안타를 맞아 1, 3루에 몰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매니 마차도를 삼진으로 잡아내고 실점하지 않았다. 6회와 7회는 다시 삼자범퇴로 마무리했다. 켈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KBO리그 SK 와이번스의 에이스로 뛰며 통산 119경기 48승 32패 평균자책점 3.86을 수확했다. 이전까지 빅리그 경험이 없었지만, SK에서의 활약을 발판 삼아 올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켈리는 리그 전반기에만 18경기 7승8패 평균자책점 4.03을 기록했다. 이날 켈리는 메이저리그 데뷔 첫 해부터 두 자리수 승리를 달성했다. /뉴시스

“류현진, 건강할 때 효과적”... FA시장 나서나

MLB닷컴, 메이저리그 한팀 이별 가능성 선수 13명 선정

류현진(32·LA 다저스·사진)은 내년 시즌 어느 유니폼을 입게 될까.



MLB닷컴은 3일(한국 시간) 메이저리그 한 팀에서만 뛰었지만, 이별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 13명을 선정했다. 올 시즌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류현진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 커리어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을 순위로 매겼고, 류현진은 11번째로 언급됐다. 매체는 “다저스는 2013시즌을 앞두고 류현진을 한국에서 데려왔다. 32살의 이 선수는 건강할 때 매우 효과적이었다. 2019년에도 이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시즌을 마친 뒤 류현진은 다저스의 캘리포니아 오퍼를 받아들여 잔류했다. 류현진과 다저스는 플레이오프가 끝난 뒤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면서도 “이번에는 그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오퍼는 한 번만 제시할 수 있고, 다저스는 이미 이 한 번을 사용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 25경기에서 12승5패 평균자책점 2.35로 활약하고 있다. 최근 3경기 부진으로 평균자책점이 1점대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전체 1위를 지키고 있다. 빅리그 데뷔 후 가장 인상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류현진과 다저스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류현진 외에는 펠릭스 에르난데스(시애틀 매리너스), 브렛 가드너(뉴욕 양키스), 아담 웨인라이트(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라이언 짐머맨(워싱턴 내셔널스), 매디슨 범가너(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알렉스 고든(캔자스 시티 로열스), 앤서니 렌던(워싱턴), 제이슨 킵니츠(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호세 아브레우(시카고 화이트삭스), 콜 칼훈(LA 에인절스), 카일 김슨(미네소타 트윈스), 잭 윌러(뉴욕 메츠) 등이 올 시즌 뒤 팀을 떠날 수 있는 선수에 포함됐다. /뉴시스

전국대회에서 ‘일냈다’

전주대 태권도학과, 대학연맹 회장기 종합우승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는 최근 강원도 철원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2회 전국대학연맹 회장기 전국 태권도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남자 대학생부 54kg급에서 전주대 태권도학과 2학년 최태열 선수가 강태욱 선수가 각각 1위를 차지하고, 80kg급 태권도학과 2학년 이경현 선수가 2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87kg급에서 태권도학과 최용락 선수가 1학년 김병기 선수가 3위를 차지해 전주대가 남자대학부 종합우승을 이뤄냈다. 이번 종합우승의 공로를 인정받아 전주대 태권도학과 김정균 코치(경기지도학

과 겸임교수)는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김정균 코치는 “대회 일정이 많은 무더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이 몸관리를 잘 하고 열정을 불태워 줘서 좋은 성적을 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노력을 결과로 증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태권도학과는 2019·2015·2014 세계태권도한마당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태권도시범 분야 명문 학과로서 최근에는 품새, 겨루기 분야에서도 종합우승을 거두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장은성기자



순창이 참 좋다. Season Your Life with Sunchang

여름, 어디로 갈까?

사시사철 아름다운
순창 강천산 으로
오세요!